

에너지 브리프¹

2026년 1월

2026년 국내 에너지 수요 전망

전년 부진했던 경제가 2026년에는 회복되지만, 에너지 수요는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전년에 이어 올해도 감소세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총에너지원별로는 석유와 석탄은 감소하고, 나머지 에너지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종 소비 부문별로는 산업과 수송에서는 감소하고 건물 부문은 전년 수준에서 정체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과 철강의 구조 조정 진행과 이에 따른 생산 감축은 산업용과 수송용 에너지 수요 감소의 주요 원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업종의 구조 조정의 속도가 올해 에너지 수요 전망의 가장 큰 불확실성 요인이다.

김철현 선임연구위원(chkim@keei.re.kr)

본고에서는 최근 발간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단기 에너지수요전망(2025~2026)”의 내용을 요약해 2026년 국내 에너지 수요 전망 결과와 주요 이슈를 살펴본다. 먼저 전망의 주요 전제들을 살펴보고, 총(일차)에너지원별, 최종 소비 부문별 전망을 정리한다.

전망 전제

에너지 수요 전망을 위한 2026년 경제성장률은 한국은행의 “경제전망보고서(2025.11)”의 결과를 사용하였다. 이에 따르면 우리 경제는 2025년 1.0% 성장에서 2026년 1.8% 성장으로 회복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미국 관세 영향이 본격화되며 수출 증가세가 둔화되나, 민간 소비 회복세가 지속되고 건설투자가 반등하며 국내 경제가 완만하게 회복할 것으로 한국은행은 전망하고 있다.

2026년 두바이유 기준 국제 유가는 EIA(STEO, 2025.11)의 WTI 전망치를 적용하여 전년 대비 21.0% 하락한 연평균 55달러 수준을 적용하였다. 국제 유가는 2025년에도 글로벌 수요 부진과 공급 과잉 등으로 전년 대비 10% 이상 하락했는데, 2026년에는 미국을 포함한 비OPEC+의 기록적인 증산, OPEC+의 자발 감산 해제 등의 공급측 요인을 중심으로 더욱 크게 하락할 것으로 보인다.

기온 전제로는 2025년 12월 3일까지의 전국 평균기온을 실적을 이용해 최근 10년의 월간 냉난방도일의 평균치를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2026년 난방도일과 냉방도일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할 것으로 전제되었다.

¹ 에너지 브리프 이슈 내용은 주제와 관련한 저자의 개인적인 견해로 에너지경제연구원의 공식적인 입장과 무관하다.

² <https://kesis.keei.re.kr/board.es?mid=a10302030000&bid=0020>

표 1 전망의 주요 전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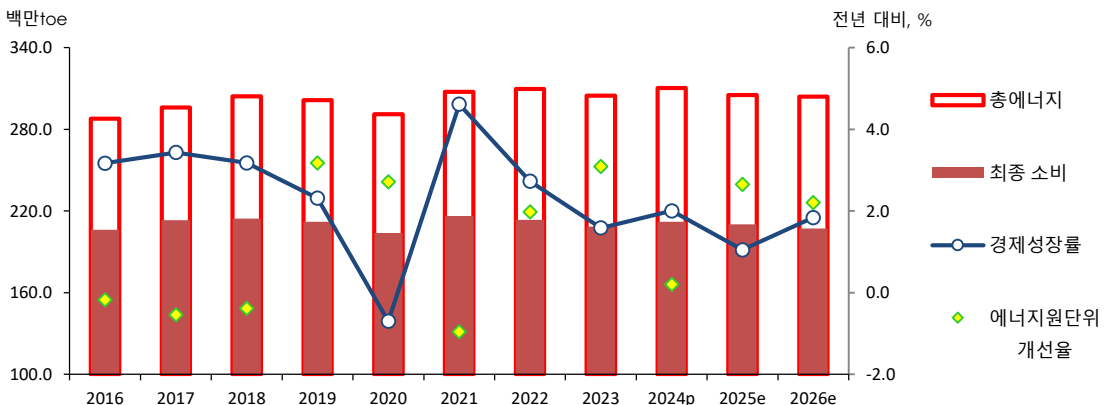
	2023	2024p	2025e		2026e			
			상반기	하반기	상반기	하반기		
경제성장률 (%)	1.6	2.0	0.3	1.8	1.0	2.2	1.5	1.8
국제 유가 (\$/bbl)	82.1	79.6	71.9	66.3	69.1	53.8	55.4	54.6
	(- 14.8)	(- 3.0)	(- 13.6)	(- 12.7)	(- 13.2)	(- 25.2)	(- 16.4)	(- 21.0)
난방도일	2 347.8	2 215.9	1 614.8	870.4	2 485.2	1 520.3	913.8	2 434.1
	(- 8.5)	(- 5.6)	(15.1)	(7.0)	(12.2)	(- 5.9)	(5.0)	(- 2.1)
냉방도일	133.6	243.5	12.8	214.4	227.2	5.0	149.9	154.9
	(- 5.8)	(82.3)	(124.6)	(- 9.8)	(- 6.7)	-	(- 30.1)	(- 31.8)

주: 괄호 안은 전년 동기 대비 증가율

일차(총) 에너지 및 에너지원별 수요

2026년 총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0.4% 감소해 303.9 백만 toe에 이를 것으로 전망되었다. 경제가 전년보다 회복될 것으로 전제하였지만, 에너지 수요는 석유화학과 철강을 중심으로 한 에너지 다소비업종에서의 부진으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석유 수요를 좌지우지하는 석유화학 산업은 2021년 상반기를 정점으로 구조적 및 단기적 요인들로 침체를 이어오고 있다. 정부는 2030년까지 국내 납사크래커(NCC) 생산 설비를 에틸렌 기준 18~25% 감축하는 구조개편 협약을 2025년 8월에 체결했다. 올해는 이러한 구조 개편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첫 해로서 납사를 중심으로 산업 원료용 석유 수요가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탄을 가장 많이 소비하는 철강업도 석유화학과 마찬가지로 구조적, 단기적 요인들로 최근 10년간 부진을 지속해 왔다. 2026년에도 미국의 관세 인상,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산, 정부의 철강산업 구조개편 등으로 철강업에서의 에너지 수요 감소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경제가 지속 성장하는 것에 반해 에너지 수요는 감소할 전망이어서 에너지원단위(총에너지소비/GDP)는 2%대의 양호한 개선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그림 1 총에너지 및 최종 소비(Mtoe), 경제성장률 및 에너지원단위 개선율(%)



총에너지원별로는 석유와 석탄은 감소세를 지속하겠으나, 나머지 에너지원은 전년 대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석유 수요는 산업용과 수송용 모두 줄며 전년 대비 1.5%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석유는 구조개편 등에 따른 NCC 설비 축소 등으로, 수송용은 제조업 경기 회복세 저조에 따른 물동량 정체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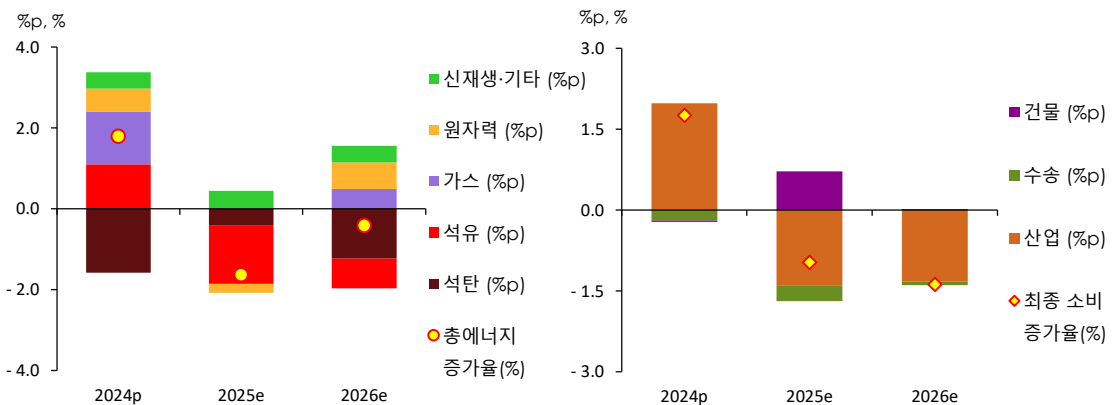
석탄 수요는 발전용과 산업용에서 줄어 전년 대비 5.8%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발전용 석탄 수요는 2025년에는 북당진-신탄정 송전선로 준공(2025.4)에 따른 송전제약의 일부 완화와 원자력 발전 감소의 영향으로 소폭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2026년에는 원자력 발전이 반등하고 태안1호기(2025.12), 보령5호기(2026.6), 하동1호기(2026.6), 태안2호기(2026.12)가 제11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LNG로 연료를 전환하는 영향으로 다시 빠르게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산업용 석탄 수요는 건설경기가 일부 회복된다고 하더라도 석탄 다소비업종인 철강과 석유화학의 구조조정 등으로 감소세를 이어갈 것으로 예상된다.

원자력은 2025년에는 예방정비량 증가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보이나, 2026년에는 새울3호기(2026.2)와 새울4호기(2026.11)가 신규 진입하며 전년 대비 5.1%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단, 송전선로 부족 등에 따른 봄철 경부하기 원전 출력제어가 2026년에도 지속되어 원자력 발전 증가세를 제약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계속운전을 위한 정비로 정지했던 고리2~4호기는 2026년에 모두 재가동하겠으나, 한빛1~2호기와 월성2호기는 계속운전을 위한 정비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가스(천연+도시) 수요는 2025년에는 전년 수준을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2026년에는 발전용을 중심으로 2.4%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발전용 가스 수요는 2025년에는 전기 수요 정체와 서해안 지역 송전제약이 일부 완화되며 감소하나, 2026년에는 전기 수요가 증가(0.5%)하며 반등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가스 발전은 송전선로 부족에 따른 송전제약으로 총발전량에서 (원자력+석탄+신재생·기타) 발전을 제외한 나머지 첨부 부하를 담당하는 구조로, 전기 수요 변화에 민감하게 변동한다.

한편, 전기 수요는 철강, 석유화학에서의 수요 부진, 상용자가발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0.5%) 증가에 그칠 전망이다. 산업용 전기 수요는 전년 수준에서 유지(-0.1%)될 것으로 보인다. 전기를 가장 많이 소비하는 기계류에서는 반도체 생산이 지속적으로 호조를 보이나, 필요한 전기의 상당량을 LNG 자가발전으로 충당하면서 한전으로부터의 수전량(전기 수요)은 보합 수준의 소폭 증가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 석유화학과 철강에서의 전기 수요는 구조 조정 등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건물용 전기 수요는 2026년에도 증가할 것으로 보이나, 증가세는 기온 효과 등으로 둔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2 총에너지/최종 소비 증가율(%) 및 에너지원별, 부문별 기여도(%p)



주: 총에너지 증가율(%)은 에너지원별 기여도(%p)의 합, 최종 소비 증가율(%)은 부문별 기여도(%p)의 합

최종 소비 및 부문별 수요

2026년 최종 소비는 산업과 수송 부문에서 감소하며 전년 대비 1.4%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산업용 에너지 수요는 석유화학 및 철강업 구조조정 등의 영향으로 2025년에 이어 2026년에도 2.0%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8월 정부는 석유화학 업계와 '석유화학 산업 재도약을 위한 사업재편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2030년까지 국내

NCC 생산 능력을 에틸렌 기준 18~25% 감축하기로 했다. 2026년은 이러한 구조개편이 본격적으로 실시되며 석유화학에서의 에너지 수요 감소세가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NCC 설비 축소로 납사 등의 원료용 에너지를 중심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단, 2026년 상업 가동을 목표로 하는 사힌 프로젝트는 석유화학의 에너지 수요 감소를 제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철강업의 구조개편도 추진 중이다. 2025년 11월 ‘철강 산업 고도화 방안’ 발표를 통해 생산 설비 규모를 조정하고 고부가가치 특수강 확대 및 저탄소 공정 전환 지원을 강화하는 고도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2026년에는 미국 관세 및 EU 쿼터 규제의 영향이 본격화되는 가운데 이러한 구조개편으로 철강업에서의 에너지 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수송용 에너지 수요는 이동 수요 증가로 휘발유 수요는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지만, 에너지 다소비업종을 중심으로 한 생산 감소와 이에 따른 화물 물동량 감소 등으로 경유 수요가 감소하며 전체로는 전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단, 전년 대비 건설 경기 회복, 반도체 경기 호조 등으로 수송용 에너지 수요 감소세는 전년에 비해 완화된 소폭 감소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수송용 전기 수요는 전기차 보급 증가와 함께 10% 이상의 빠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수송용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전기 소비 비중은 2024년 1.4%에서 지속 상승해 2026년에는 2%에 근접할 것으로 보인다.

건물용은 냉난방도일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민간 소비가 지속 회복되며 에너지 수요가 정체할 것으로 예상된다. 10년 평균 기온을 가정 시 냉방도일과 난방도일이 모두 전년 대비 감소하며 2026년 에너지 수요 감소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추운 겨울로 전년에 빠르게 증가했던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와 같은 난방용 에너지는 2026년에는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이며, 대표적 난방용 에너지인 전기도 증가세가 0%대로 둔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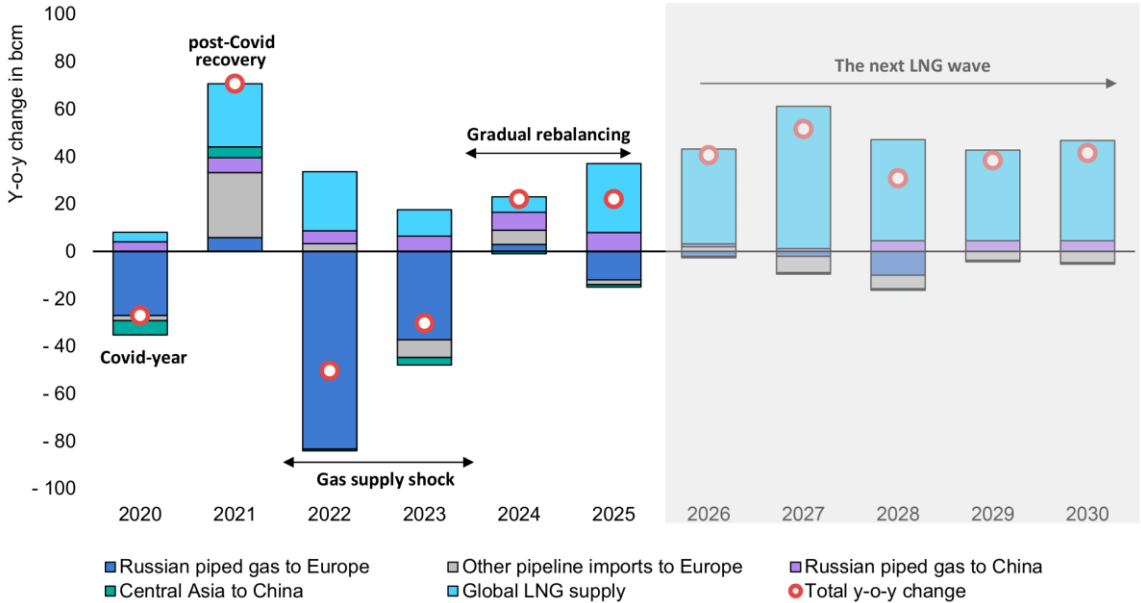
2026년 국내 수요 전망의 주요 이슈

올해 국내 에너지 수요 전망의 불확실성을 크게 가증시키는 요소는 석유화학 및 철강에서의 구조개편에 따른 생산량 감축의 정도이다. 기존 전망에서 석유화학의 2026년 원료용 에너지 수요는 전년 대비 2%대 후반 정도 감소할 것으로 전망되었는데, 구조조정이 천천히 진행된다면 1%대 중반으로, 목표에 부합하는 수준으로 구조조정이 빠르게 이뤄진다면 3%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철강의 제철용 석탄 수요는 2025년에는 국내 건설경기 침체 효과로 3%대 중후반으로 빠르게 감소, 2026년에는 기저효과 등으로 3% 수준으로 감소세가 소폭 완화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하지만, 미 관세 및 글로벌 보호무역주의 확대 속, 산업 구조개편 진행으로 철강업에서의 에너지 수요 감소 폭에 대한 불확실성은 크다. 석유화학 및 철강이 국내 산업 전체 에너지 소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70%가 넘는 것을³ 고려하면, 이들 업종에서의 에너지 수요 감소가 실현되는 정도에 따라 2026년 국가 전체의 에너지 수요가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2026년은 글로벌 천연가스 공급이 큰 폭으로 증가하기 시작하는 첫해로 기록될 것으로 보이는데, 이에 따라 국내 천연가스 직수입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제에너지기구(IEA(2025))는 2026년을 LNG 물결의 첫해(“The first year of LNG Wave”)로 명명하며, 천연가스 공급이 미국을 중심으로 역사상 유례없는 규모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2026년 글로벌 천연가스 수요의 증가세도 빨라지나 공급 증가율과의 격차는 벌어지며 국제 천연가스 가격은 하락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최근 천연가스 가격 결정 방식이 전통적인 유가 연동 계약 보다는 시장 상황을 실시간으로 반영하는 가스 허브 연동 방식으로 변하고 있으며, 과거의 경직된 장기 계약 보다는 보다 짧은 계약 기간과 도착지 제한이 없는 유연한 조건의 계약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는 천연가스 공급 물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에 따라 시장의 주도권이 구매자(수요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구조적인 변화로 여겨지고 있다.

³ 2025년 1~10월 누계 기준, 석유화학 및 철강이 산업 전체에서 차지하는 에너지 소비 비중은 각각 51.6%와 19.7%이다.

그림 3 주요 파이프라인 천연가스 거래량 및 잠재 글로벌 LNG 공급량 전년 대비 변화



자료: IEA(2025.10) p.12

이러한 구매자 우위 시장과 국제 천연가스 가격 하락은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의 증가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몇 년간 국내 민간 천연가스 직수입이 빠르게 증가해왔는데, 2026년에도 이러한 요인들로 빠른 증가세를 유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체 산업용 가스 수요에서 민간 직수입 물량이 차지하는 비중은 2024년 37.6%에서 지속 상승해 2026년에는 43%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국내 민수용 도시가스 요금은 한국가스공사의 미수금 문제 등으로 인하 가능성이 작아, 국제 천연가스 가격 하락에 따른 국내 민수용 도시가스 수요 영향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에너지경제연구원. 2026.1. 『단기 에너지수요전망(2025~2026)』. <https://kesis.keei.re.kr/board.es?mid=a10302020000&bid=0019>
- 한국은행. 2025.11. 『경제전망보고서』
- EIA. 2025.11. 『Short-Term Energy Outlook』
- IEA. 2025.10. 『Gas 2025』

1.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 에너지 시장

□ 12월 국제 유가, 연료탄, JKM은 전월 대비 각각 3.8%, 1.6%, 9.0% 하락

- 12월 국제 유가는 우크라이나 종전 기대와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로 전월 대비 3.8% 하락
 - 12월 14일 베를린 회동으로 인한 러시아-우크라이나 종전에 대한 기대는 국제 유가 하방 압력으로 작용
 - 미국의 원유 생산량 증가로 인한 원유 공급 과잉은 국제 유가 하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 ※ 12월 미국 원유 주간 생산량은 일평균 약 1,385만 배럴로 전년 동월 대비 35만 배럴 증가
- 국제 연료탄 가격은 국제 천연가스 가격의 하락으로 인해 전월 대비 1.6% 하락
- 국제 가스 가격의 경우 JKM, TTF, Henry Hub는 전월 대비 각각 9.0%, 8.8%, 1.6% 하락
 - 미국 국내 천연가스 지표인 Henry Hub는 12월 중하순 기록적인 이상 고온 현상으로 인해 난방 수요가 감소하여 전월 대비 1.6% 하락
 - 2025년 1분기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LNG 수출 증가로 인해 동북아 가격 지표 JKM과 유럽 가격 지표인 TTF는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8.6%, 31.4% 하락

※ 2025년 12월 미국 LNG 수출량은 1,150만톤을 기록하였으며, 이는 미국 LNG 수출량 역대 월별 최고치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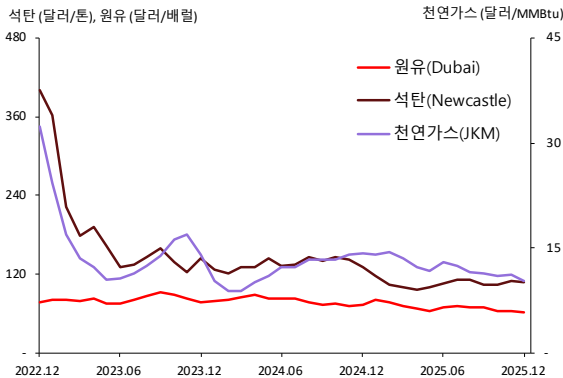
국제 에너지 가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원유 (달러/배럴)	96.4 (39.1)	82.1 (-14.8)	79.6 (-3.0)	70.9 (2.3)	69.4 (-2.1)	70.0 (0.9)	65.0 (-7.2)	64.5 (-0.8)	62.1 (-3.8)
석탄 (달러/톤)	357.1 (161.8)	174.7 (-51.1)	135.6 (-22.3)	111.4 (5.2)	112.2 (0.8)	104.5 (-6.8)	104.4 (-0.1)	110.4 (5.8)	108.6 (-1.6)
천연가스 (달러/MMBtu)									
Henry Hub	6.5 (75.3)	2.7 (-59.1)	2.4 (-9.4)	3.3 (-9.4)	2.9 (-12.5)	3.0 (4.2)	3.4 (11.4)	4.5 (33.2)	4.4 (-1.6)
TTF	40.2 (149.6)	13.0 (-67.6)	11.0 (-15.9)	11.7 (-5.9)	11.1 (-4.5)	11.1 (-0.0)	10.9 (-2.2)	10.4 (-4.4)	9.5 (-8.8)
JKM	33.9 (89.1)	14.4 (-57.4)	11.9 (-17.7)	12.5 (-4.0)	11.6 (-7.2)	11.3 (-2.7)	11.1 (-1.8)	11.2 (1.2)	10.2 (-9.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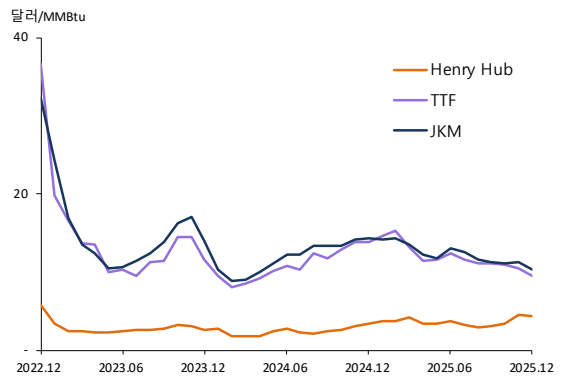
주: 원유는 두바이유, 석탄은 호주 뉴캐슬 연료탄 기준. 석탄과 천연가스는 선물 가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Group

국제 에너지 가격



국제 천연가스 가격



국내 에너지 수입 가격

□ 11월 원유, LNG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각각 6.1%, 2.9% 하락, 석탄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12.8% 상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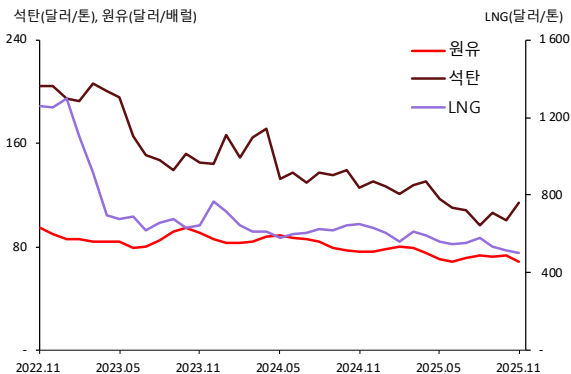
- 10월 9일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1단계 휴전안 합의에 따른 증동의 지정학적 리스크 완화로 국제유가가 하락하여 11월 원유 수입 단가는 전월 대비 6.1% 하락
 - 10월 9일 기준 66.40달러를 기록했던 국제 유가(두바이유)는 10월 17일 61.3달러까지 하락하며 11월 원유 수입단가 하락에 영향을 줌
- 석탄 수입 단가는 상대적으로 단가가 높은 원료탄 수입 비중이 증가하여 전월 대비 12.8% 상승
- LNG 수입 가격은 국제 원유 가격 및 LNG 가격 하락으로 인해 전월 대비 2.9% 하락
 - 2025년 초부터 본격화된 미국의 LNG 수출량 증가로 인해 LNG 수입 단가는 전년 동월 대비로는 23.0% 하락
 - ※ 우리나라의 LNG 기간계약은 주로 브렌트, JCC(일본 원유 수입 가격), ICP(인도네시아 원유 수출 가격) 등의 유가와 연동되어 있음
- 11월 프로판, 부탄 수입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6.4%, 6.3% 하락
 - 전월 대비 사우디 아람코 프로판, 부탄 계약 가격이 각각 4.0%, 3.2% 하락한 영향을 받음
 - 2025년 OPEC+의 증산과 미국의 원유 생산 확대로 인한 유가 하락으로 인해 프로판과 부탄 가격은 전년 동월 대비 각각 20.5%, 19.3% 하락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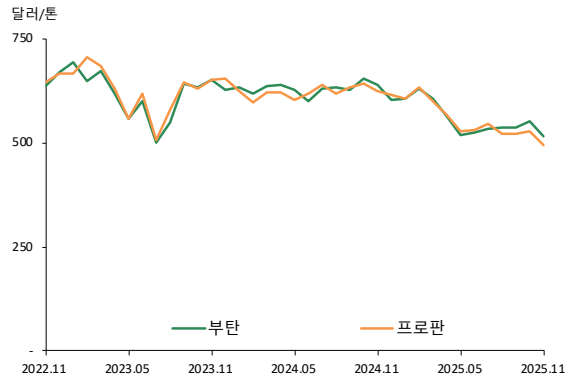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원유 (달러/배럴)	102.3 (45.5)	85.9 (-16.1)	82.8 (-3.6)	68.7 (-2.8)	71.4 (4.0)	73.2 (2.6)	72.8 (-0.6)	73.3 (0.8)	68.8 (-6.1)
석탄 (달러/톤)	225.6 (95.4)	168.7 (-25.2)	142.3 (-15.7)	111.8 (-3.7)	108.2 (-3.2)	96.2 (-11.1)	105.7 (9.9)	100.7 (-4.8)	113.5 (12.8)
LNG (달러/톤)	1 055.3 (91.6)	780.5 (-26.0)	628.4 (-19.5)	545.4 (-2.5)	551.6 (1.1)	579.6 (5.1)	533.3 (-8.0)	514.1 (-3.6)	499.1 (-2.9)
프로판 (달러/톤)	756.3 (15.4)	626.4 (-17.2)	621.0 (-0.9)	531.3 (0.7)	546.0 (2.8)	520.9 (-4.6)	521.2 (0.0)	529.0 (1.5)	495.2 (-6.4)
부탄 (달러/톤)	756.9 (21.3)	615.6 (-18.7)	628.5 (2.1)	523.8 (1.2)	532.6 (1.7)	535.9 (0.6)	536.9 (0.2)	551.2 (2.7)	516.7 (-6.3)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수입 단가



국내 LPG 수입 단가



2. 국내 에너지 가격

석유제품 가격

□ 12월 휘발유와 경유 가격은 전월 대비 각각 1.3%, 1.9% 상승

- 11월 싱가포르 현물시장 재고 감소로 인한 국제 가격 상승은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방 압력 요인으로 작용
 - 11월 동아시아 주요 정유사 정기 보수와 러시아 정제 시설에 대한 공격 등으로 인해 싱가포르 경질유 월평균 재고는 2025년 1월 이후 최저치인 약 1,250만 배럴을 기록
 - ※ 싱가포르의 휘발유와 경유 국제가격이 국내 가격에 반영되는데 2주 정도의 시차가 발생함. 따라서 월간 자료에서는 국내 휘발유 및 경유 가격이 전월이나 당월 국제가격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남
- 10월 평균 환율 대비 2.4% 상승한 이례적인 11월 고환율도 국내 석유제품 가격 상방 압력으로 작용
 - 11월 25일 환율은 1달러 당 1,473.5원까지 상승하였으며, 이는 당시 2025년 환율 최고 기록임
- 12월 휘발유와 경유 유류세는 리터 당 763원, 523원 수준이며, 유류세 인하는 2월까지 연장 시행
- LPG 가격은 SK가스과 E1 등의 LPG 공급사가 가격을 동결하기로 결정하여 전월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
 - 사우디 아람코 LPG 계약 가격은 전월 대비 하락하였으나, 환율은 전월 대비 상승하여 가격을 동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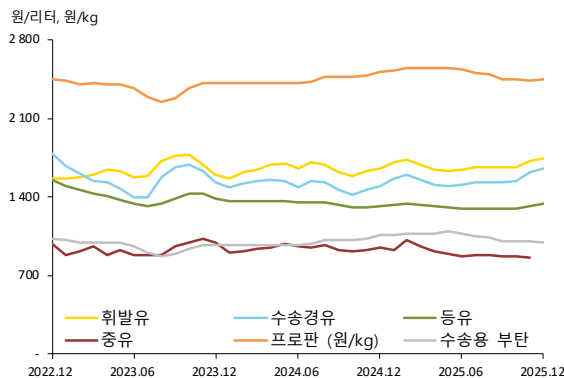
국내 석유제품 가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휘발유 (원/리터)	1 812.7 (13.9)	1 643.3 (-9.3)	1 646.8 (0.2)	1 667.6 (1.6)	1 665.9 (-0.1)	1 659.9 (-0.4)	1 663.2 (0.2)	1 718.1 (3.3)	1 740.2 (1.3)
수송용 경유 (원/리터)	1 843.4 (32.4)	1 558.4 (-15.5)	1 502.6 (-3.6)	1 531.6 (1.7)	1 535.7 (0.3)	1 530.7 (-0.3)	1 536.8 (0.4)	1 619.1 (5.4)	1 650.5 (1.9)
등유 (원/리터)	1 487.4 (57.1)	1 399.5 (-5.9)	1 344.7 (-3.9)	1 296.2 (0.0)	1 293.2 (-0.2)	1 291.9 (-0.1)	1 295.1 (0.3)	1 316.0 (1.6)	1 334.3 (1.4)
중유 (원/리터)	1 116.1 (52.4)	931.5 (-16.5)	938.5 (0.8)	885.5 (1.3)	877.8 (-0.9)	864.4 (-1.5)	871.2 (0.8)	855.3 (-1.8)	-
프로판 (원/kg)	2 480.1 (18.5)	2 372.0 (-4.4)	2 446.2 (3.1)	2 506.6 (-1.1)	2 492.0 (-0.6)	2 444.3 (-1.9)	2 445.6 (0.1)	2 442.6 (-0.1)	2 445.0 (0.1)
수송용 부탄 (원/리터)	1 081.8 (16.0)	957.4 (-11.5)	995.3 (4.0)	1 053.5 (-2.0)	1 037.5 (-1.5)	1 000.6 (-3.6)	999.1 (-0.1)	998.3 (-0.1)	998.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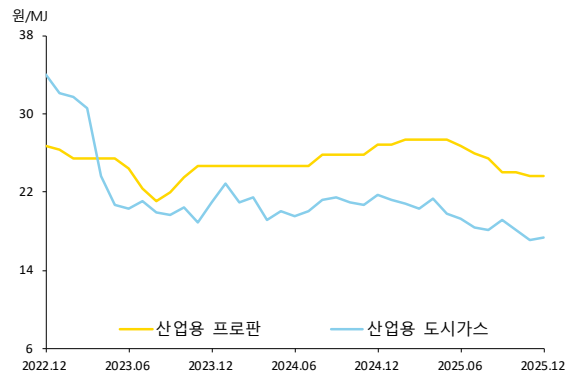
주: 휘발유, 경유, 부탄은 주유소/충전소 가격, 등유는 실내등유 가격, 중유는 대리점 가격, 프로판은 판매소 가격.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국내 석유제품 가격



산업용 프로판 도시가스 가격 비교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 12월 도시가스 요금은 주택용, 일반용은 전월과 동일한 수준을 유지, 업무난방용과 산업용은 전월 대비 상승

- 주택용과 일반용 요금은 도매요금의 경우 2024년 7월 인상 이후 변화가 없으며, 소매요금은 2025년 7월 인상 결정 이후 동일한 수준을 유지
 - ※ 도시가스 소매요금은 서울도시가스 요금표를 기준으로 함
- 업무난방용, 산업용 도시가스 요금은 원료비가 전월 대비 0.3원/Mcal 상승한 14.9원/Mcal로 조정되어 전월 대비 각각 1.3%, 1.5% 상승
 - ※ 원료비는 소매요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민수용(주택용, 일반용) 원료비는 2개월(각 홀수월에 산정), 상업용(업무난방용, 산업용 등) 원료비는 1개월 주기로 산정. 공급비용은 총괄원가에서 원료비를 제외한 원가로서 1년에 1회(도매 5월, 소매 7월) 조정

□ 지역난방 열요금은 2024년 7월에 2023년 연료비 정산에 따른 인상요인 반영으로 10.6% 인상된 후 줄곧 동결

- 열요금은 도시가스 요금 인상에도 불구하고 가계 부담 등을 고려하여 작년 7월 인상 이후로 동일한 수준을 유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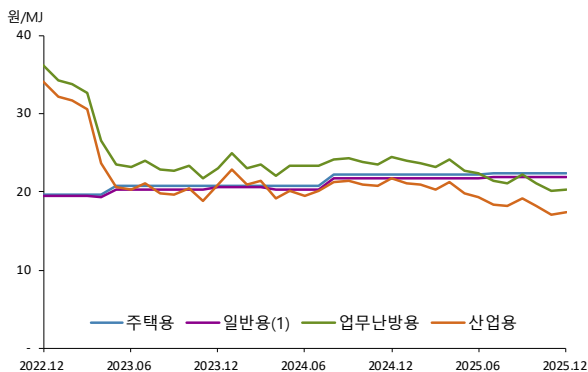
도시가스 및 열에너지 요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16.6 (16.8)	20.4 (22.8)	21.4 (4.9)	22.4 (0.3)	22.4 -	22.4 -	22.4 -	22.4 -	22.4 -
일반용(1)	16.3 (17.4)	20.1 (23.2)	21.0 (4.6)	21.9 (0.3)	21.9 -	21.9 -	21.9 -	21.9 -	21.9 -
업무난방용	28.7 (66.6)	26.0 (-9.5)	23.6 (-8.9)	21.4 (-4.1)	21.2 (-1.0)	22.1 (4.7)	21.2 (-4.4)	20.1 (-5.2)	20.3 (1.3)
산업용	25.9 (79.9)	23.3 (-10.1)	20.9 (-10.5)	18.4 (-4.8)	18.2 (-1.2)	19.1 (5.5)	18.2 (-5.1)	17.1 (-6.0)	17.3 (1.5)
열에너지 (원/Mcal)									
주택용	74.2 (13.8)	96.1 (29.5)	107.0 (11.3)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112.3 -
업무용	96.4 (13.8)	124.8 (29.5)	138.9 (11.3)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145.8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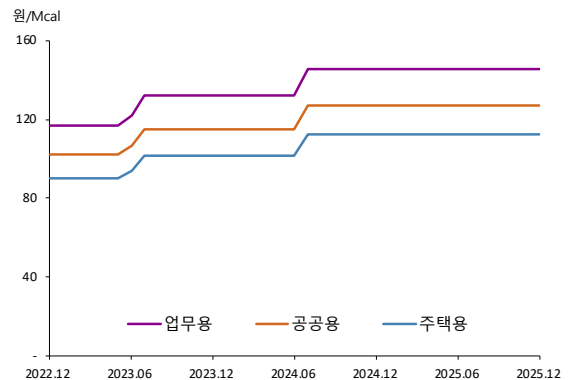
주: 월별 가격은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열 요금은 난방용 단일요금 기준(부가세, 기본요금 제외)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도시가스 요금



열에너지 요금



전기 요금 및 연료비 단가

□ 12월 전기요금은 주택용, 일반용, 산업용 모두 전월 수준을 유지

- 주택용 전력량 요금, 일반용 겨울철 전력량요금은 2023년 5월 요금 조정 이후 변화가 없으며, 산업용 겨울철 전력량 요금은 2024년 10월 요금 조정 이후 변화가 없음
- 2025년 4분기 연료비조정요금은 kWh당 -12.1원으로 산정되어 연료비조정단가 인하 요인이 발생하였으나, 한전의 재무상황 등을 고려하여 2025년 3분기와 동일한 5.0원을 적용
- 기후환경요금은 2023년 1월 인상 이후 kWh당 9.0원을 유지하고 있으며, 전력량요금, 기후환경요금, 연료비조정요금을 반영한 주택용, 일반용 및 산업용 전기요금은 전월과 동일

□ 12월 발전 연료비 단가 중 천연가스는 전월 수준을 유지, 유연탄과 원자력은 각각 0.2%, 0.1% 상승

- 천연가스와 유연탄의 발전 연료비 상대 단가(천연가스/유연탄)는 1.67으로 전월 대비 0.2% 하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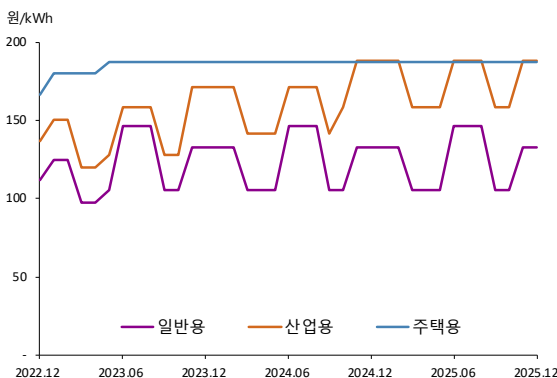
전기요금 및 발전 연료비 단가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전기요금 (원/kWh)									
주택용	157.2 (8.1)	185.4 (17.9)	188.0 (1.4)	188.0 -	188.0 -	188.0 -	188.0 -	188.0 -	188.0 -
일반용	94.2 (14.4)	122.4 (29.9)	125.0 (2.2)	146.4 -	146.4 -	105.9 (-27.7)	105.9 -	133.0 (25.6)	133.0 -
산업용	108.1 (15.1)	145.5 (34.5)	163.6 (12.5)	188.8 -	188.8 -	158.8 (-15.9)	158.8 -	188.8 (18.9)	188.8 -
발전 연료비단가 (원/kWh)									
LNG	204.6 (113.9)	179.6 (-12.3)	141.1 (-21.4)	120.9 (-5.1)	118.0 (-2.4)	120.6 (2.2)	115.5 (-4.2)	110.1 (-4.7)	110.1 (0.0)
유연탄	110.4 (96.3)	101.0 (-8.5)	76.3 (-24.5)	74.0 (-7.0)	70.9 (-4.2)	66.9 (-5.6)	65.1 (-2.7)	65.9 (1.2)	66.0 (0.2)
원자력	6.36 (2.5)	6.37 (0.2)	6.41 (0.6)	6.39 (0.2)	6.40 (0.2)	6.40 (0.1)	6.42 (0.2)	6.42 (0.1)	6.43 (0.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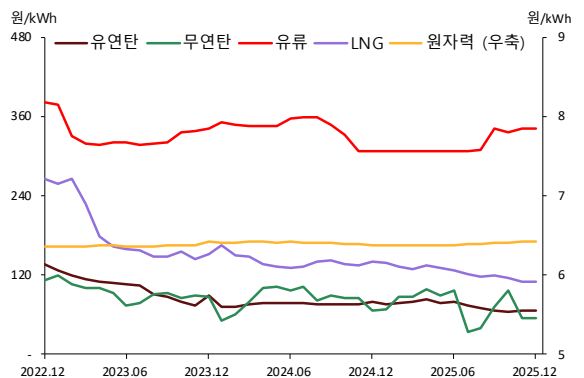
주: 전기 요금은 주택용(고압), 2구간 전력량 요금, 일반용(갑, 저압), 산업용(을), 고압B 중간부하)을 사용하며 월말 가격을 기준으로 함.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계약종별 전기 요금



에너지원별 연료비 단가



SMP 및 REC 가격

□ 12월 계통한계가격(SMP)은 전월 대비 4.6% 하락*

- 전국과 육지 SMP는 4.6% 하락한 90.4원/kWh이며 제주는 5.0% 하락한 91.0원/kWh임

※ 계통한계가격은 한전이 전력거래소를 통해 발전사업자로부터 전력을 구입하는 가격이며, 시간대별로 전력 수요와 공급이 일치하는 지점에서 투입되는 발전기의 발전비용으로 산정

□ 12월 REC 현물 가격은 7.23만원/REC로 전월 대비 0.2% 상승

- REC 거래량은 191.8만 REC로 전월 대비 16.1% 상승, 거래대금은 1386.7억 원으로 전월 대비 16.4% 상승
- 2025년 RPS(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의무비율은 14.0%로 전년 대비 0.5%p 상승
 - 2024년 REC 발급량은 8,001만 REC로 2024년 RPS 의무공급량의 93.6% 수준을 기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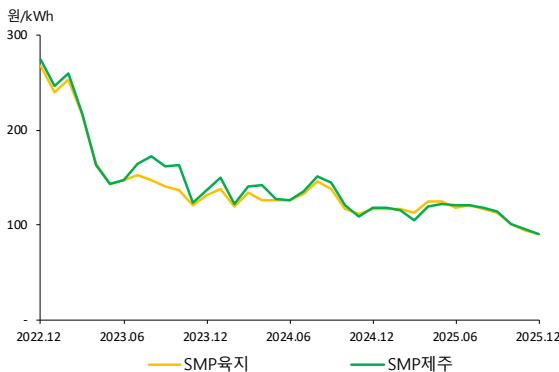
SMP 및 REC 가격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SMP(통합) (원/kWh)	196.7 (109.2)	167.1 (-15.6)	128.4 (-22.9)	120.4 (2.0)	117.4 (-2.5)	112.9 (-3.8)	101.5 (-10.1)	94.8 (-6.6)	90.4 (-4.6)
육지	196.0 (109.3)	167.0 (-15.4)	128.3 (-22.9)	120.4 (2.0)	117.4 (-2.5)	112.9 (-3.8)	101.5 (-10.1)	94.8 (-6.6)	90.4 (-4.6)
제주	252.2 (97.2)	176.9 (-30.3)	133.5 (-24.3)	121.1 (0.4)	118.5 (-2.2)	114.1 (-3.7)	101.2 (-11.3)	95.8 (-5.3)	91.0 (-5.0)
SMP 결정 비중 (%)									
LNG	87.0	82.5	93.3	96.1	90.1	69.7	70.6	74.0	-
유연탄	11.5	14.9	6.1	3.9	9.9	28.5	28.6	0.6	-
유류	1.4	2.4	0.1	0.0	0.0	0.3	0.3	0.0	-
REC 현물가격 (천원/REC)	56.9 (64.3)	72.8 (27.9)	76.2 (4.6)	71.6 (-0.4)	71.9 (0.3)	72.0 (0.2)	72.3 (0.5)	72.1 (-0.2)	72.3 (0.2)
REC 거래량 (만 REC)	1 374.3 (34.9)	1 446.1 (5.2)	1 372.1 (-5.1)	197.6 (51.7)	175.0 (-11.5)	213.9 (22.2)	164.7 (-23.0)	165.2 (0.3)	191.8 (16.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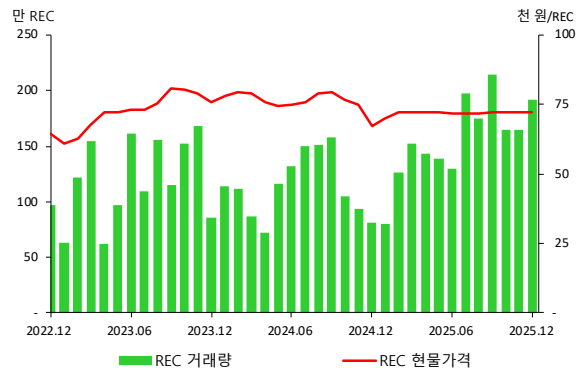
주: ()는 전월/전년 대비 증가율(%)

자료: 전력거래소

SMP 가격



REC 현물가격 및 거래량



* 4당월 호를 작성하는 시점에 12월 SMP 결정 비율 통계가 발표되지 않아 연료비 단가 변화 외에 추가적 요인을 파악하기 힘든 상황임

3. 일차에너지소비 및 최종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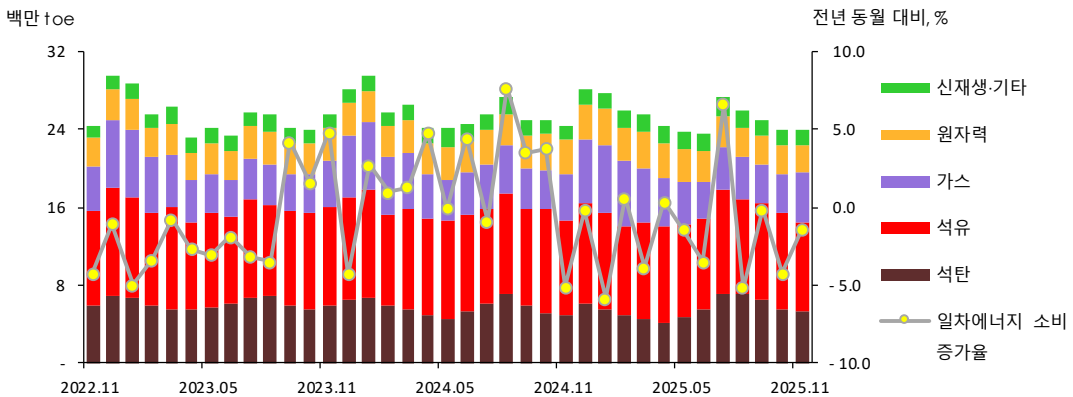
□ 11월 일차에너지 소비는 석탄과 가스는 증가하고 석유와 원자력은 줄며 전년 동월 대비 1.4% 감소

- 석탄 소비는 산업 산업용이 줄었으나 발전용이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8.4% 증가. 산업용은 철강용이 반등했으나 나머지 업종에서 줄며 감소, 발전용은 원자력 발전의 급감을 대체하며 빠르게 증가
- 가스 소비는 모든 부문에서 늘며 전년 동월 대비 4.6% 증가. 산업용은 도시가스 소비가 늘며 소폭 증가, 건물용은 기온 효과로 증가, 발전용은 기저+신재생·기타 발전량 감소에 따른 침투 부하 증가로 증가
- 석유 소비는 산업용이 석유화학 경기 침체와 근무일수 축소 등으로 감소하고, 수송용도 전월 재고 소진, 석유제품 가격 상승, 물동량 감소 등으로 휘발유와 경유를 중심으로 줄어 전년 동월 대비 4.8% 감소
- 원자력 발전은 9월 이후 예방정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며 전년 동월 대비 19.1% 감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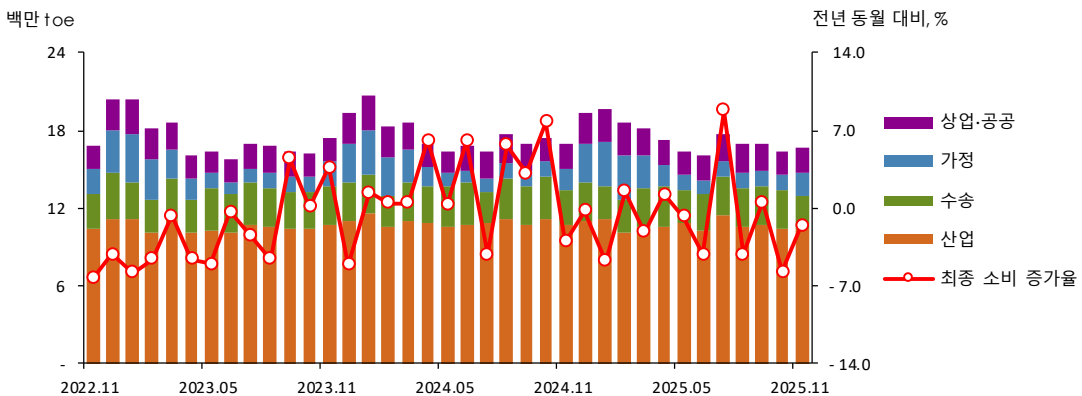
□ 에너지 최종 소비는 건물 부문에서 증가했으나, 산업과 수송에서 줄어 전년 동월 대비 1.5% 감소

- 산업 부문 소비는 제조업 경기 부진, 근무일수 1일 감소, 석유화학 경기 침체 등으로 2.6% 감소
- 수송 부문 소비는 국내항공 및 해운에서 늘었으나 도로 부문에서 줄며 전년 동월 대비 7.8% 감소
- 건물 부문 소비는 이른 한파와 서비스업 생산 증가 등으로 가정과 상업 부문에서 모두 늘며 6.3% 증가
- 에너지원별 최종 소비는 가스, 전기, 열, 신재생·기타에서 증가했으나 석탄과 석유에서는 감소

일차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최종에너지 소비 및 증가율 추이



<부록> 에너지 가격 및 수급 통계

국제 에너지 가격

	2023년		2024년				2025년			
			1~12월	10월	11월	12월	1~12월	10월	11월	12월
원유 (달러/배럴)										
WTI	77.6	75.7	75.7	71.6	69.5	69.7	64.8	60.1	59.5	57.9
	(-17.6)	(-2.4)	(-2.4)	(3.2)	(-2.8)	(0.2)	(-14.4)	(-5.5)	(-1.0)	(-2.7)
Dubai	82.1	79.6	79.6	74.9	72.6	73.2	69.4	65.0	64.5	62.1
	(-14.8)	(-3.0)	(-3.0)	(1.9)	(-3.1)	(0.9)	(-12.8)	(-7.2)	(-0.8)	(-3.8)
Brent	82.2	79.8	79.8	75.4	73.4	73.1	68.2	64.0	63.7	61.6
	(-16.9)	(-2.9)	(-2.9)	(3.4)	(-2.6)	(-0.4)	(-14.5)	(-5.4)	(-0.5)	(-3.2)
수입단가 (CIF)	85.9	82.8	82.8	77.5	76.6	76.2	-	73.3	68.8	-
	(-16.0)	(-3.6)	(-3.6)	(-2.5)	(-1.1)	(-0.5)	-	(0.8)	(-6.1)	-
천연가스 (달러/MMBtu)										
일본 수입 가격	14.4	12.8	12.8	12.5	12.8	12.6	-	11.1	11.0	-
	(-21.9)	(-10.7)	(-10.7)	(-3.3)	(2.2)	(-1.4)	-	(-3.2)	(-0.8)	-
Henry Hub	2.7	2.4	2.4	2.6	3.0	3.4	3.6	3.4	4.5	4.4
	(-59.1)	(-9.4)	(-9.4)	(7.0)	(15.7)	(14.2)	(50.4)	(11.4)	(33.2)	(-1.6)
NBP	12.7	10.8	10.8	13.2	14.3	14.2	11.8	10.8	10.6	9.7
	(-60.3)	(-14.3)	(-14.3)	(14.7)	(8.9)	(-0.7)	(8.6)	(0.2)	(-2.3)	(-7.8)
TTF	13.1	10.9	10.9	12.9	13.9	13.8	11.9	10.9	10.4	9.5
	(-67.5)	(-16.1)	(-16.1)	(9.7)	(7.8)	(-0.5)	(9.1)	(-2.2)	(-4.4)	(-8.8)
JKM	14.4	11.9	11.9	13.3	14.1	14.3	12.3	11.1	11.2	10.2
	(-57.3)	(-17.8)	(-17.8)	(-0.5)	(5.8)	(1.6)	(3.3)	(-1.8)	(1.2)	(-9.0)
수입단가 (달러/톤, CIF)	782.0	628.4	628.4	646.2	648.3	633.9	-	514.1	499.1	-
	(-25.8)	(-19.6)	(-19.6)	(4.6)	(0.3)	(-2.2)	-	(-3.6)	(-2.9)	-
석탄 (달러/톤)										
호주 뉴캐슬 연료탄	174.8	135.6	135.6	145.4	141.8	130.1	106.3	104.4	110.4	108.6
	(-50.9)	(-22.4)	(-22.4)	(3.8)	(-2.4)	(-8.3)	(-21.6)	(-0.1)	(5.8)	(-1.6)
수입단가 (CIF)	169.6	143.2	143.2	139.2	125.9	130.2	-	100.8	113.9	-
	(-25.1)	(-15.6)	(-15.6)	(2.7)	(-9.6)	(3.4)	-	(-5.2)	(13.0)	-
석유제품 (달러/배럴)										
휘발유	98.8	93.0	93.0	85.9	84.5	84.6	80.8	79.7	81.5	77.3
	(-14.3)	(-5.8)	(-5.8)	(3.7)	(-1.7)	(0.2)	(-13.2)	(-2.2)	(2.2)	(-5.2)
경유	106.4	96.3	96.3	87.9	89.2	88.9	87.7	88.9	93.6	82.4
	(-21.4)	(-9.6)	(-9.6)	(4.3)	(1.5)	(-0.4)	(-8.9)	(-0.2)	(5.3)	(-12.0)
중유	71.8	74.0	74.0	72.2	71.6	70.2	66.2	60.3	56.5	53.7
	(-12.8)	(3.1)	(3.1)	(6.9)	(-0.9)	(-1.8)	(-10.5)	(-5.6)	(-6.3)	(-4.9)
프로판	573.6	610.4	610.4	625.0	635.0	635.0	565.0	495.0	475.0	495.0
	(-11.7)	(6.4)	(6.4)	(3.3)	(1.6)	-	(-7.4)	(-4.8)	(-4.0)	(4.2)
부탄	574.5	607.5	607.5	620.0	630.0	630.0	546.3	475.0	460.0	485.0
	(-11.6)	(5.7)	(5.7)	(4.2)	(1.6)	-	(-10.1)	(-3.1)	(-3.2)	(5.4)
납사	69.1	72.3	72.3	73.0	69.7	69.0	64.4	61.7	61.7	58.5
	(-16.8)	(4.5)	(4.5)	(4.2)	(-4.5)	(-0.9)	(-10.8)	(-4.8)	(-0.0)	(-5.3)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휘발유는 95RON, 경유는 0.001%, 중유는 고유황중유(180cst/3.5%), 프로판과 부탄은 CP 기준 값

자료: 한국석유공사, World Bank, CME, 한국무역협회

국내 에너지 가격

	2023년		2024년				2025년			
			1~12월	10월	11월	12월	1~12월	10월	11월	12월
석유제품										
휘발유 (원/리터)	1 643.0 (-9.3)	1 646.6 (0.2)	1 646.6 (0.2)	1 591.3 (-1.9)	1 628.3 (2.3)	1 653.6 (1.6)	1 680.6 (2.1)	1 663.2 (0.2)	1 718.1 (3.3)	1 740.2 (1.3)
등유 (원/리터)	1 399.9 (-5.8)	1 344.7 (-3.9)	1 344.7 (-3.9)	1 310.1 (-1.7)	1 309.8 (-0.0)	1 312.6 (0.2)	1 312.3 (-2.4)	1 295.1 (0.3)	1 316.0 (1.6)	1 334.3 (1.4)
경유 (원/리터)	1 558.7 (-15.4)	1 502.6 (-3.6)	1 502.6 (-3.6)	1 421.4 (-2.5)	1 461.0 (2.8)	1 497.2 (2.5)	1 553.2 (3.4)	1 536.8 (0.4)	1 619.1 (5.4)	1 650.5 (1.9)
중유 (원/리터)	931.5 (-16.5)	938.4 (0.7)	938.4 (0.7)	917.0 (-0.6)	928.7 (1.3)	946.9 (2.0)	-	871.2 (0.8)	855.3 (-1.8)	-
프로판 (원/kg)	2 372.2 (-4.3)	2 446.1 (3.1)	2 446.1 (3.1)	2 474.7 (-0.0)	2 477.1 (0.1)	2 521.6 (1.8)	2 501.3 (2.3)	2 445.6 (0.1)	2 442.6 (-0.1)	2 445.0 (0.1)
부탄 (원/리터)	957.6 (-11.5)	995.2 (3.9)	995.2 (3.9)	1 016.9 (-0.0)	1 029.9 (1.3)	1 058.3 (2.8)	1 044.2 (4.9)	999.1 (-0.1)	998.3 (-0.1)	998.1 (-0.0)
도시가스 (원/MJ)										
주택용	20.4 (22.9)	21.4 (4.9)	21.4 (4.9)	22.3 -	22.3 -	22.3 -	22.3 (4.4)	22.4 -	22.4 -	22.4 -
일반용(1)	20.1 (23.3)	21.0 (4.6)	21.0 (4.6)	21.8 -	21.8 -	21.8 -	21.8 (3.9)	21.9 -	21.9 -	21.9 -
업무난방용	26.0 (-9.3)	23.6 (-9.1)	23.6 (-9.1)	23.8 (-1.7)	23.5 (-1.3)	24.5 (4.1)	22.2 (-6.1)	21.2 (-4.4)	20.1 (-5.2)	20.3 (1.3)
산업용	23.3 (-9.9)	20.8 (-10.6)	20.8 (-10.6)	21.0 (-2.0)	20.7 (-1.4)	21.7 (4.7)	19.2 (-7.7)	18.2 (-5.1)	17.1 (-6.0)	17.3 (1.5)
열 (원/Mcal)										
주택용	96.1 (29.6)	106.9 (11.3)	106.9 (11.3)	112.3 -	112.3 -	112.3 -	112.3 (5.0)	112.3 -	112.3 -	112.3 -
업무용	124.7 (29.6)	138.8 (11.3)	138.8 (11.3)	145.8 -	145.8 -	145.8 -	145.8 (5.0)	145.8 -	145.8 -	145.8 -
공공용	108.9 (29.6)	121.3 (11.3)	121.3 (11.3)	127.3 -	127.3 -	127.3 -	127.3 (5.0)	127.3 -	127.3 -	127.3 -

주 :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자료: 한국석유공사, 서울도시가스, 한국지역난방공사

국내 전력 및 REC 가격

	2023년	2024년				2025년				
			1~12월	10월	11월	12월	1~12월	10월	11월	12월
전기 (원/kWh)										
주택용	171.3 (15.9)	174.0 (1.6)	174.0 (1.6)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174.0 -
일반용	108.4 (27.7)	111.1 (2.5)	111.1 (2.5)	91.9 -	119.0 (29.5)	119.0 -	111.1 -	91.9 -	119.0 (29.5)	119.0 -
산업용	131.5 (33.0)	149.6 (13.8)	149.6 (13.8)	144.8 (13.2)	174.8 (20.7)	174.8 -	162.3 (8.5)	144.8 -	174.8 (20.7)	174.8 -
기후환경요금	9.0 (32.4)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9.0 -
연료비조정요금	5.0 (100.0)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5.0 -
발전 연료비 단가 (원/kWh)										
유류	330.2 (-6.2)	342.7 (3.8)	342.7 (3.8)	332.8 (-4.5)	307.0 (-7.8)	307.7 (0.2)	319.1 (-6.9)	337.1 (-1.6)	342.1 (1.5)	341.6 (-0.2)
LNG	180.0 (-12.1)	141.1 (-21.6)	141.1 (-21.6)	136.8 (-3.8)	135.5 (-1.0)	141.3 (4.3)	124.2 (-12.0)	115.5 (-4.2)	110.1 (-4.7)	110.1 (0.0)
무연탄	93.3 (-12.7)	83.9 (-10.1)	83.9 (-10.1)	85.9 (-4.8)	84.7 (-1.4)	67.2 (-20.7)	73.4 (-12.5)	96.2 (33.6)	54.7 (-43.1)	55.8 (2.0)
유연탄	101.1 (-8.3)	76.2 (-24.6)	76.2 (-24.6)	75.2 -	76.4 (1.7)	80.4 (5.2)	73.7 (-3.3)	65.1 (-2.7)	65.9 (1.2)	66.0 (0.2)
원자력	6.37 (0.2)	6.41 (0.6)	6.41 (0.6)	6.40 (-0.2)	6.40 (-0.0)	6.38 (-0.3)	6.39 (-0.3)	6.42 (0.2)	6.42 (0.1)	6.43 (0.1)
SMP (원/kWh)										
SMP육지	167.0 (-15.2)	128.3 (-23.2)	128.3 (-23.2)	117.2 (-15.6)	112.3 (-4.2)	116.6 (3.8)	- (-11.8)	101.5 (-10.1)	94.8 (-6.6)	90.4 (-4.6)
SMP제주	176.9 (-30.1)	133.5 (-24.5)	133.5 (-24.5)	120.6 (-16.9)	108.7 (-9.9)	118.2 (8.8)	- (-15.3)	101.2 (-11.3)	95.8 (-5.3)	91.0 (-5.0)
SMP통합	167.1 (-15.4)	128.4 (-23.2)	128.4 (-23.2)	117.2 (-15.6)	112.2 (-4.3)	116.6 (3.9)	- (-11.8)	101.5 (-10.1)	94.8 (-6.6)	90.4 (-4.6)
REC										
REC 평균가격 (천원/REC)	72.7 (27.8)	76.2 (4.7)	76.2 (4.7)	76.9 (-3.0)	75.0 (-2.4)	67.2 (-10.5)	71.9 (-5.6)	72.3 (0.5)	72.1 (-0.2)	72.3 (0.2)
REC 거래량 (천 REC)	1 205.1 (5.2)	1 143.5 (-5.1)	1 143.5 (-5.1)	1 043.8 (-33.9)	936.4 (-10.3)	816.9 (-12.8)	1 566.2 (37.0)	1 646.6 (-23.0)	1 651.9 (0.3)	1 918.4 (16.1)

주 1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2 전기요금은 주택용(고압, 201~400kWh), 일반용(갑 I, 저압), 산업용(을), 고압B, 선택 II 중간부하) 기준

3 연간 및 월간 SMP는 시간대별 SMP를 시간대별 전력수요예측량으로 가중평균한 값이고, 연초 누계(ex. 1~N월) SMP는 월간 SMP를 단순평균한 값임

자료: 한국전력공사, 전력거래소

일차에너지 소비

	2023년	2024년p				2025년p				
		1~11월	9월	10월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석탄 (백만 톤)	120.5 (-3.1)	112.9 (-6.3)	102.8 (-6.2)	9.8 (1.2)	8.5 (-6.4)	8.2 (-15.6)	100.7 (-2.1)	10.9 (11.1)	9.1 (6.6)	8.9 (8.4)
- 원료탄 제외	96.4 (-4.3)	90.5 (-6.1)	82.3 (-6.1)	7.9 (3.7)	6.5 (-7.9)	6.4 (-16.4)	80.9 (-1.7)	9.2 (16.1)	7.2 (10.2)	7.1 (10.6)
석유 (백만 bbl)	779.7 (-4.3)	803.1 (3.0)	734.5 (3.3)	65.5 (3.1)	70.9 (9.7)	64.7 (-2.5)	713.7 (-2.8)	66.5 (1.5)	66.3 (-6.5)	61.6 (-4.8)
가스 (백만 toe)	57.1 (-3.8)	61.0 (6.9)	54.5 (7.2)	4.2 (7.5)	4.0 (5.3)	4.8 (0.5)	54.4 (-0.2)	3.9 (-7.2)	4.0 (0.5)	5.0 (4.6)
- 천연가스 (백만 톤)	43.5 (-4.2)	46.4 (6.7)	41.2 (6.9)	3.1 (7.3)	3.1 (4.8)	3.8 (-1.9)	41.1 (-0.2)	2.9 (-6.8)	3.1 (1.0)	4.0 (4.4)
- 도시가스 (십억 m3)	0.2 (-371.6)	0.3 (56.3)	0.5 (33.2)	0.0 (26.1)	-0.0 (-24.7)	-0.2 (-43.5)	0.5 (0.6)	0.0 (-41.2)	-0.1 (37.2)	-0.1 (-3.0)
원자력 (TWh)	180.5 (2.5)	188.8 (4.6)	172.0 (4.8)	15.8 (5.7)	17.1 (12.8)	16.1 (2.7)	169.3 (-1.6)	14.3 (-10.1)	13.8 (-19.5)	13.1 (-19.1)
신재생·기타 (백만 toe)	18.4 (10.4)	19.6 (6.5)	17.9 (5.6)	1.6 (4.1)	1.5 (-3.4)	1.4 (0.0)	19.2 (7.0)	1.6 (3.2)	1.5 (2.5)	1.7 (16.3)
총에너지 (백만 toe)	304.9 (-1.6)	310.6 (1.8)	282.4 (2.1)	25.0 (3.5)	25.0 (3.8)	24.3 (-5.1)	277.5 (-1.7)	25.0 (-0.1)	23.9 (-4.2)	24.0 (-1.4)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년 동월 대비 증가율(%),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 총에너지 소비를 향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일차에너지 소비 비중

(단위 %)

	2023년	2024년p				2025년p				
		1~11월	9월	10월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석탄	23.9	22.0	22.0	23.8	20.8	20.4	22.0	26.3	23.0	22.4
석유	38.7	39.1	39.3	39.8	42.7	39.8	38.5	39.5	41.6	38.1
가스	18.7	19.7	19.3	16.6	16.1	19.7	19.6	15.5	16.9	20.9
- 천연가스	18.7	19.6	19.1	16.5	16.3	20.4	19.4	15.4	17.2	21.6
- 도시가스	0.1	0.1	0.2	0.2	-0.2	-0.6	0.2	0.1	-0.3	-0.6
원자력	12.6	12.9	13.0	13.5	14.6	14.1	13.0	12.2	12.2	11.6
신재생·기타	6.0	6.3	6.3	6.3	5.8	5.9	6.9	6.5	6.2	6.9
총에너지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주: p는 잠정치, 석유는 원유 및 정제원료와 석유제품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향한 값, 가스는 천연가스와 도시가스의 일차에너지 소비를 향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I)

최종 소비

(단위: 백만 toe)

	2023년	2024년p				2025년p				
		1~11월	9월	10월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산업	126.5 (-2.4)	130.7 (3.4)	119.7 (3.6)	10.7 (2.7)	11.1 (7.3)	10.7 (0.5)	117.0 (-2.2)	10.6 (-0.7)	10.4 (-6.3)	10.4 (-2.6)
수송	35.3 (-2.7)	35.0 (-1.0)	32.0 (-1.1)	2.9 (1.1)	3.3 (14.0)	2.7 (-10.7)	31.0 (-3.0)	3.0 (4.4)	3.0 (-7.3)	2.5 (-7.8)
가정	22.3 (-5.3)	22.1 (-1.2)	19.1 (-0.8)	1.2 (8.6)	1.3 (1.4)	1.7 (-11.0)	20.0 (4.4)	1.2 (-1.4)	1.2 (-3.4)	1.9 (8.7)
상업·공공	24.4 (1.3)	24.6 (0.9)	22.3 (1.1)	2.1 (5.3)	1.8 (4.4)	1.8 (-2.8)	22.8 (2.5)	2.1 (2.5)	1.8 (-1.4)	1.9 (4.0)
최종 소비	208.5 (-2.3)	212.3 (1.8)	193.1 (2.1)	16.9 (3.1)	17.4 (7.7)	16.9 (-3.0)	190.8 (-1.2)	17.0 (0.5)	16.4 (-5.8)	16.7 (-1.5)
석탄 (백만 톤)	48.4 (0.2)	47.5 (-2.0)	43.2 (-2.5)	3.9 (-2.6)	4.1 (0.0)	3.8 (-10.0)	40.4 (-6.7)	3.4 (-13.8)	3.8 (-7.7)	3.7 (-1.8)
석유제품 (백만 bbl)	766.2 (-4.1)	796.4 (3.9)	729.5 (4.4)	65.1 (4.9)	70.8 (12.3)	64.6 (-0.1)	714.9 (-2.0)	66.9 (2.8)	66.1 (-6.8)	61.7 (-4.5)
- 비에너지유 제외	338.5 (-2.1)	332.1 (-1.9)	301.4 (-2.0)	26.5 (-0.3)	31.2 (14.1)	26.7 (-8.9)	288.2 (-4.4)	27.6 (4.4)	27.5 (-12.0)	24.4 (-8.7)
전기 (TWh)	532.7 (-0.3)	536.6 (0.7)	492.2 (1.0)	49.2 (4.9)	43.0 (5.9)	40.9 (-2.2)	492.4 (0.0)	49.4 (0.4)	41.1 (-4.4)	41.1 (0.6)
천연가스 (백만 톤)	2.2 (33.2)	3.3 (52.4)	3.0 (54.0)	0.3 (42.7)	0.3 (42.0)	0.3 (74.4)	3.3 (12.1)	0.3 (12.9)	0.3 (18.5)	0.3 (-0.3)
도시가스 (십억 m³)	21.7 (-7.3)	21.3 (-1.8)	18.5 (-1.7)	1.0 (-4.9)	1.1 (-5.5)	1.7 (-11.8)	19.0 (2.8)	1.0 (4.6)	1.1 (-2.1)	1.8 (7.8)
열·신재생·기타 (천 toe)	10.2 (-0.3)	10.1 (-1.2)	9.0 (-0.9)	0.7 (-1.8)	0.7 (0.9)	0.8 (-5.4)	9.4 (4.6)	0.7 (12.7)	0.7 (-1.9)	0.8 (5.1)

주: p는 잠정치, ()는 전년/전월 대비 증가율(%),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

최종 소비 비중

	2023년	2024년p				2025년p				
		1~11월	9월	10월	11월	1~11월	9월	10월	11월	
산업	60.7	61.6	62.0	63.3	63.8	63.2	61.3	62.6	63.4	62.5
수송	16.9	16.5	16.6	17.2	18.6	15.8	16.2	17.9	18.3	14.8
가정	10.7	10.4	9.9	7.2	7.3	10.3	10.5	7.0	7.4	11.4
상업·공공	11.7	11.6	11.5	12.2	10.3	10.7	12.0	12.5	10.8	11.3
석탄	14.9	14.2	14.3	14.7	15.0	14.1	13.5	12.8	14.7	14.1
석유제품	46.3	47.0	47.4	48.3	51.3	47.9	46.9	49.4	50.3	46.2
- 비에너지유 제외	21.0	20.2	20.1	20.2	23.2	20.2	19.5	21.0	21.8	18.8
전기	22.0	21.7	21.9	25.1	21.2	20.8	22.2	25.0	21.5	21.2
천연가스	1.4	2.0	2.0	2.1	1.9	2.4	2.3	2.4	2.4	2.4
도시가스	10.6	10.2	9.8	5.9	6.6	10.0	10.2	6.1	6.9	11.0
열·신재생·기타	4.9	4.7	4.7	3.9	3.9	4.7	4.9	4.4	4.1	5.0

주: p는 잠정치, 비에너지유는 원료용 프로판, 부탄 소비를 포함한 값
자료: 에너지수급통계(KEE)